

일본의 전력요금, 미국의 2.3배 한국의 2.7배

엔고, 높은 법인세율과 함께 매우 높은 전력요금이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원자력발전이 정지되고 더욱이 간 나오토수상이 말하는 「원자력 없는 일본」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 일본의 전력사정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는 전망

□ 전력요금은 저하추세

-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2009년도 일본 국내 전기요금의 평균 단가는 1KW당 16엔(가정용 20.5엔, 산업용 13.8엔)임. 이는 전력요금자유화 이전 1994년도와 비교하여 17% 저하된 수준
- 전력 각사는 연료비의 증감을 전력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조정제도」에 기초하여 인상한 경우는 있었으나 요금체계를 개정하는 형태로 인상했던 적은 1981년도 북해도전력 이래 한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전력요금자유화에 따라 요금인하 개정을 반복
- 1970년대 중반 석유위기 이후 연료비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쉬운 석유화력으로부터 원자력발전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것도 요금인하의 한 요인임. 총 발전량에서 점하는 화력발전비율은 1973년도의 80%에서 2009년도에는 60%로 저하되고 원자력비율은 10% 미만에서 30%로 상승

□ 금후 전력요금 상승요인들

- 다만, 국회에서 심의중인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안이 통과하여 태양광발전 등의 전기를 전력회사들이 전량 구매하게 되면 그 만큼 비용이 상승되어 요금상승으로 이어지게 됨.
- 현재 정지된 원자력발전을 화력으로 대체하는데 따른 연료비 증가도 요금상승 요인으로 작용

□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일본의 전력요금

-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전력요금은 비싼 편임. 국제에너지기관(IEA)에 따르면 산업용전기요금은 프랑스가 KW당 10.7센트(8.5엔), 미국6.8센트(약5.4엔), 한국5.8센트(약 4.6엔)임. 이에 비하여 일본은 15.8센트(약12.5엔)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미국의 2.3배, 한국의 2.7배 수준
- 일본의 경우 화력발전비율이 저하되어왔다고 하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의 태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조달비용이 큼. 전력요금자유화로 신규사업자는 증대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회사들의 지역독점하에서 경쟁이 촉진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음.
 - 대형 전력회사들이 송전망을 가지고 있고 신규사업자들이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되는 현행 제도가 높은 전력요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한편, 한국의 전력요금이 싼 것은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전력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이것이 국민부담이긴 하나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배경 때문에 최근 해외로부터 일본공장 유치교섭도 활발해지고 있음.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대만의 관련당국이 대만의 전력요금이 일본의 1/3인 점 등을 들어 동경과 오오사카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대만진출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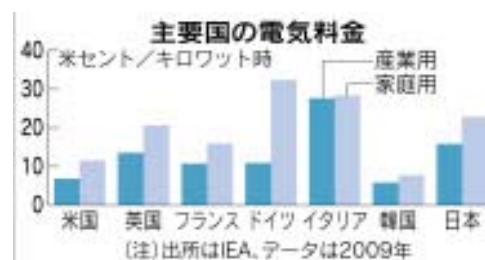
□ 「원자력 없는 일본」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 일본의 전력사정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져

- 미즈호 코퍼레이트은행의 시산에 의하면 일본의 철강업계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6,653억엔, 전자부품업계는 3,842억엔을 지불하고 있음. 현재로도 한국이나 대만의 2~3배가되는 일본의 전기요금이 원자력발전이 정지되는 경우 화력발전 연료비 증가로 1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음. 엔고, 높은 법인세에 더하여 경쟁조건이 점점 불리해진다는 것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일본의 에너지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간 나오토 수상이 표방하는 「원자력 없는 일본」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 일본은 전력사정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는 전망
 - 2010년도의 원자력발전에 의한 발전량 2882억KW를 가스, 화력, 태양광 등으로 반반씩 충당하는 경우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시산결과를 기초로 하여 산정해보면, 일본의 발전비용은 현재인 1.8배인 16조엔으로 확대

<도표 1> 일본의 전기요금



<도표 2> 주요국의 전기요금



* 참고자료 : 日本經濟新聞(2011.07.19)